

社說

스스로 가르치는 부지런함을 배우길
— 다가오는 방학에 바란다

6월은 방학의 달이 한 학기의 막을 내리는 달이다. 방학은 학생이 갖는 특권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방학의 특권은 열심히 배웠느냐 또 열심히 가르쳤느냐에 따라 향유될 수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과연 학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대학인으로서 후회없는 한 학기였는가를 반성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낭만이 있고, 노력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학이라고 한다. 물론 부정하지는 않지만 반면 젊은이에게는 배움의 과정에 있기에 때로는 방황이 있고 실의가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정열은 강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의욕은

왕성하고 경험이 미흡하고 광기는 있으며 충기가 모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서 인지와 양력 즉 뜻을 세우고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역학법칙이 지배하고 사회에는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본인 것이다. 그런데 그 힘은 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칸트는 일찍이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설파한 바 있다. 이 말은 배우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고 배움을 포기하는 것은 정신의 자살인 것이며 공부할 포기하는 것은 인격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너 자신이

선생이 되어 너자신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기자신을 가르치기에 게으름이 없을 때 자기발전은 물론 사회발전 더 나아가서 국가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얼마전 일본의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끼의 '한국붕괴'라는 책에서 '한국인은 세계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일침을 가하며 말하기를 '옛날부터 유유자적하던 한국인을 오늘날처럼 근면한 모습으로 변하게 한 것은 본래 자본주의 정신의 표현이 아니라 형그리 정신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은 배고프기 때문에 일했고 배고프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며 또한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일했고 따라서 지위가 높아지면 놀아날 수를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이 양반정신의 유산물이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다 시한편 자각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의 자존심을 손상 받고도 분발할 줄 모른다면 미래사회도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청년교육 여하에 달렸다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명심하고 유교철리인 수기치인 즉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다스리기에 게으르지 말고 있었던 자존심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방학은 쉬는 방학이 아니라 방학을 배우는다는 정신으로 오늘을 음미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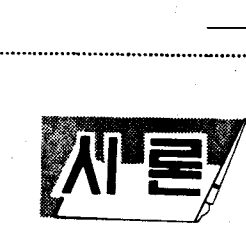
학원·종교단체 탄압 근절해야
—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언

작금의 현실을 살펴보자. 과연 대학의 자율성과 인간의 종교에 대한 경의심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두궁금하기 짝이 없다. 본래 공권력이란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건강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제를 해야 하는 것이 정설이다. 그간 사회각계에서 제기되었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가 높아만 가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비난의 목소리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15일 전주에서 발생한 경찰의 교회나입사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권력의 횡포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교회로 들어간 학생들을 뒤통으로 전경들이 교회마당까지 들어가 최후탄을 쏘고 돌을 던져 대형유리창 및 유리

고 빌딩사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대학인이라면 누구나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과 양심의 전담인 학원과 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마음을 가지는 곳까지도 공권력의 위력이 통용되는 사회가 도달하게 될 경우 절정은 어디라고 할 수 있는가? 법을 도덕의 최소한이라 전제할 때, 인륜과 도덕을 사회질서라는 명목아래 무시할 수 있는 그 파란한 배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자제'보다는 일단 '발본색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공권력은 본래의도를 벗어나 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명약관화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학원의 자율성을 호도하고 인간본연의 도를 넘어서려는 행위는 결코 환영받지 못할 처사임을 밝히며 학원내 공권력투입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기선장악 위한 다수의 횡포



임시국회 소집을 바라보며

지원받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 북방정 책을 통해 획득한 기성적 성과가 상당

한 정치정점을 즉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여야총체회담, 야권통합, 지자체, 내각제개헌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양상이 표출될 것이다.

민자당은 우선 김대중의 요청으로 열릴 예정인 여야총체회담을 통해서 오히려 김대중총체 위상제정립을 시도

는 실상이 한동안 연기를 것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여야 모두 의원비중을 약화시킬 지자제선거에 내심 반대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민자당의 복안이 내각제개헌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아직 민자당이 내각제개헌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표현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내내 개헌추진에 확실하다고 관측되고 있으며 따라서 개헌추진 의원선거 그리고 지자제선거의 단계를 취할 가능성이 가장 높

다 할 수 있겠다. 현재 야권의 민자당에 대한 대응방

거를 파헤쳐서 6공의 정통성결함과 비도덕성을 밝히는 초보적인 원외투쟁과 함께 김대중 총체의 위상부침 여부에 따라서 원내투쟁도 불사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분열되어져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현상에서 능동적으로 정국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야권통합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야권통합의 대의명분은 평민 민주(기침) 재야 모두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제도권내에서는 통합과정에서 차기정국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권력투쟁이 선행되고 있고, 김총체의 이선퇴진이라는 현실적이지도 않은 요구가 있다. 이에 김총체는 영수 회담 이후 자신의 위상문제를 해결한 이후에야 결단을 내릴 것을 표명하고 있는데 실상 범야권 통합을 주장하여 소장정치인의 집단인 민주당의 입지를 희석화하려는 의도라 하겠다.

는 세력과 즉각적인 민중정당을 창당하여 재야의 제도권내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다. 즉 야권의 통합을 주도할 현실적인 세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하겠다.

이런 야권의 분열상은 민자당의 분열과 실정을 향해 날라를 공격의 화살을 피하게 해 주며 민자당의 의도대로 정국이 주도되어지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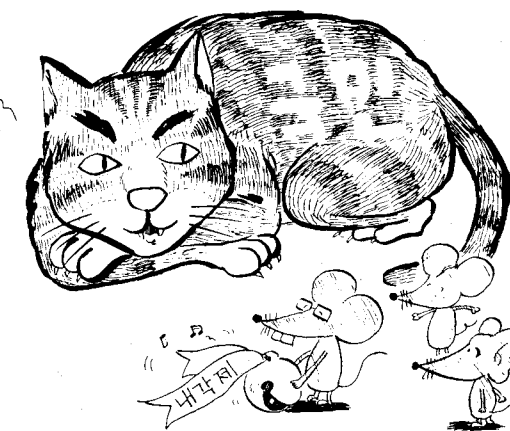
여권은 대야권제정립을 상황에 맞추어서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야권분열상이 너무 급격하게 첨예화되면 그 타개방식으로 야권이 극한투쟁화 할 수 있고 그것은 취약한 민자당에게 여파가 밀려올 수 있으므로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평민당을 일단 야권의 중심세력으로 인정하여 명분을 제공, 의회중심의 정치를 지속시키고자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내 내각제 개헌추진을 위해서 우선 민자당내의 불협화음을 제거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야권과의 대결도 불사할 것이다. 이 경우는 북방정책의 기성적 효과가 현저할 때 가능할 것이다. 즉 한소정상회담이후 소련 및 중공과의 관계개선이 가시화되고, 북한과의 획기적인 남북관계개선의 조치가

가 실행되기 위한 전제로서 내각제 개헌의 당위성을 제시할 때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서로의 세를 확인하는 탐색의 시기이므로 대치국면에

서 상당기간 방황모색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유영학
(대학원 박사과정·정치학)

(고) (황) (만) (평)



"뛰어! 이방울을 목에 달라고?"

민자, 연내 내각제 개헌 추진 가시화 조짐
능동적 정국주도 위한 야권 통합 시급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평민당 내부 분열을 안고 있는 김총체의 경우 야권대표로서의 입지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평민당 의원 일부가 야권통합의 명분으로 탈당할 가능성이 있고, 연쇄적으로 민자당 민주계 의원도 가세할 가능성이 있어서 김영삼의 정치위상에 '위협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 경우 노대통령은 김총체가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파트너로 존속하기를 희망하여 유화책을 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총체에 대한 위상설정은 기존의 일대일의 관계가 아닌 현재 야권분열을 최대한 이용하고, 유지시키는 방식일 것이다. 즉 김총체가 과거에 지닌 지분일부를 떼어 민주, 그리고 창당할 지도 모르는 재야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야권분열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즉 개혁입법처리, 국내경제구조조제조성, 민자당계파간 갈등조절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민당이 임시국회개회 명분의 하나로 제시한 지자제문제에 대해 민자당은 계파간에 아직 일치된 견해가 없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평민당과 합의하여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실상은 양당이 합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지자제

식은 지자제 실시, 5공청산, 광주문제 재야에서도 제도권정당뿐 아니라 민주재야세력의 범야권통합을 추구하

꿈의지·정열의결정



6월주제
'방학'

이제 기말시험이 끝나면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대학생이라면 저마다 멋진 계획을 세우고 보람찬 방학을 보내고자 할 것이다.

영국의 시인 리처드 키플링(R. Kipling)은 그의 유명한 시 '만약'(If)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만약 네가 꿈을 가질 수 없고, 그러나 그 꿈들이 너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만약 네가 성공과 실패를 다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 두개의 사기꾼들을 똑같이 다룰 수가 있다면;..."

이제 너는 한 사람의 어른이 되었고 네가 사랑하는 젊은이여,"

꿈과 의지와 정열의 결집인 하기방학을 맞이하는 대학생들에게

이 키플링의 시 한편을 선물로 주고 싶다. 어느해이던가 여름방학 친구 세 명과 함께 아칸소주로 성공과 실패를 저울질하며 모험을 떠났다. 아칸소주에는 북미주에서 유일하게 개발된 다이아몬드 자연광산이 있다. 이름도 '다이아몬드-공원'

난, '다이아몬드 공원'으로
성공과 실패의 모험길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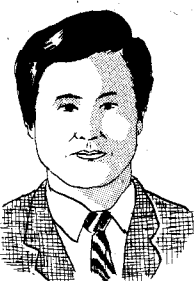
(Crater of Diamonds State Park)이다. 누구든지 와서 다이아몬드를 캐 수 있고 재수가 좋아 노다지가 나

오면 황제를 하게 된다. 노다지를 캔 사람이 바로 주인이 되는 것이다.

특별하게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삽이나 곡괭이 쇠칼 등을 연장만 있으면 족하다. 다이아몬드를 캔다면 광산에서 기계장비를 이용해 채굴하는 것으로 생각 하겠지만 이곳에서는 호미로 땅을 파듯이 하여 발견하는 것으로 너무나 쉽게 황제를 할 수도 있다. 마치 논밭처럼 자연광산이 되어 있어 삽으로 파헤친다든가 갈퀴로 흙을 뒤집다가 반짝이는 돌이 나

은 다이아몬드가 확실하다"면서 다이아몬드 확인서"를 주면 그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발견하고 캔 사람' 것이 되는 것이다.

아칸소주 수도인 리틀록에서 서



김 신
(사회대교수·무역학)

남쪽으로 뻗어나간 30년 프리아이는 도로 양면에 늘어진 소나무 숲과 나란히 달리 있다. 약2시간 쯤 달려 아가펠라란 곳에서 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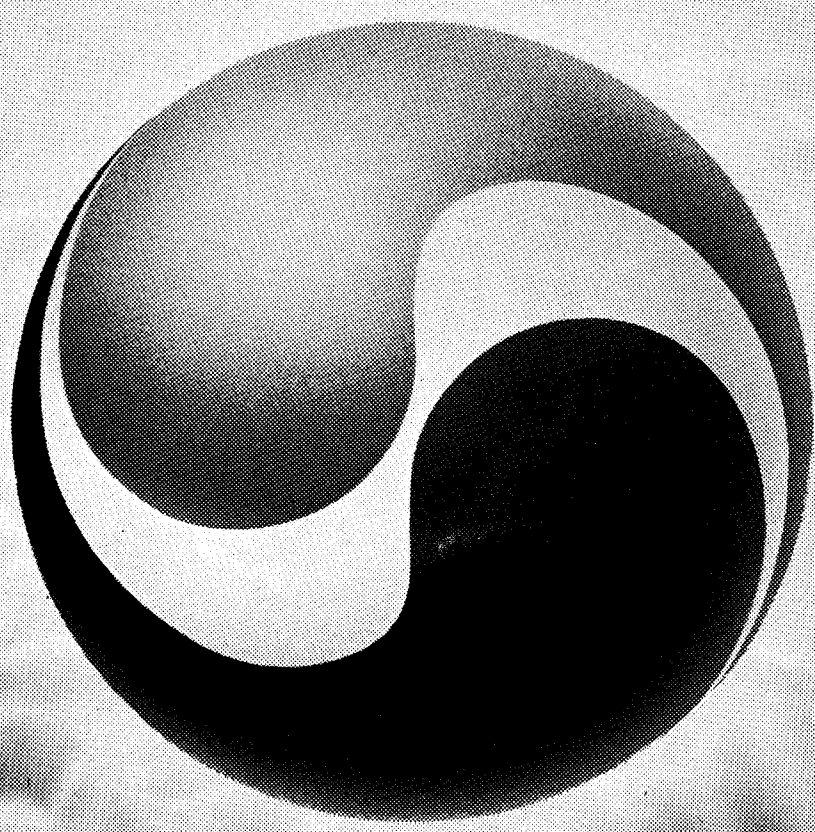
으로갈라진 28번 하이웨이로 들어 서면 소나무들보다 한결 싱싱해 보인다.

공원사무소 뒷문을 통해서 바로 약 2백미터. 지점에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커다란 분지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분지 출구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이다.

원래 화산분화구였던 이곳이 오랜세월을 지나는 동안 지질변화를 거쳐왔는데 1906년에 존 허슬튼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노다지를 캐면서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개발 되었다고 한다. 물론 탐사결과 아무런 소독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기대도 않았지만...

유명해지는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꼭 이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름과 돈이란 한 작품에 비하면 달고할 가치없는 습작노릇도 남겨두면 좋다는 것을 생각해 하며 한 여름밤의 꿈은 그렇게 지나갔다.

창공에 펼쳐지는 당신의 미래



操縦 訓練生 募集

募集人員 및 應試資格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공학과
45 50명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단, 자가용자동차명장 소지자는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199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병역을 필한 자 ●해외여행에 걸려사유가 없는 자 ●항공법 시행규칙 제71조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나안 시력 1.0 이상인 자 ●조종사명장 소지자는 우대함	제한없음

教育期間 및 處遇

- 교육기간: 2년 (교육기간 동안 숙식제공)
- 처우: 대졸사원에 준하는 처우 (교육이수후 소정의 자격 취득시 대한항공 조종사 요원으로 입사)

提出書類

- 응시원서 (당사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전학한 성적증명서 1부

銓衡方法

●필기시험

과목	일	시	장소
영어 일반지식	6월 17일 (일)	09:00부터	이화여고

- 후후 전형절차: 적성면접 → 신체검사 → 비행적성 실기시험 → 면접
- 후후 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應試願書 交付 및 接受

- 기간: 1990년 6월 4일 ~ 6월 12일 (09시 ~ 17시) (공휴일 제외)
- 접수처: 서소문 KAL 빌딩 및 대한항공 국내 전 지점/영업소
- 접수처: 서소문 KAL 빌딩 및 대한항공 부산, 대구, 광주, 제주지점

其 他

- 우편접수는 마감일내 도착분에 한함 (우편번호 100-608 서울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 인사부)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인사부 또는 접수처 문의 바람
- 전화: 서울 751-7334/7, 부산 463-1031, 대구 423-4237, 광주 232-7770, 제주 22-4207

